2026. 3.23

FI Weekly

채권 김지나
6148 / jnkim0526@eugenefn.com

신현송, 새로운 한은 수장의 성향은?

- 3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 지명 배경으로는 1) 중동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최근 국내외 경제를 구분할 수 없는 흐름이며, 2) 인플레이션 가능성 있어 국제 금융과 거시경제의 권위자가 적합하다고 설명.

- 실제로 신현송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출신임과 동시에 뉴욕 연준 금융자문위원 및 IMF 경제학자 경험이 있음. **2014년부터 BIS 경제자문역 및 조사국장, 통화경제국장 등 화려한 이력을 소유.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계기는 2005년 잭슨홀 미팅, 2006년 IMF 연차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것**.

- **국내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음. 당시 외화의 유출입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제고 3종 정책(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만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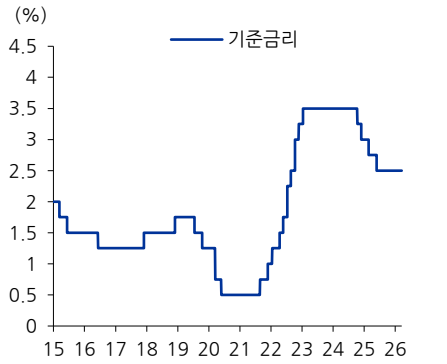
- **기본적으로 매파적 성향**의 인물. **금융 안정을 중시하고 자산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있음.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인식도 높은 편**. 과거 발언을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언급했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앵커링(anchoring)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함.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역할을 단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고착화되기 전에 예방적/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 **저금리에 대해서는 재정 확대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게 평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므로 통화와 재정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한은 총재로서 재정정책 찬반을 언급하긴 애매하므로 정부의 확장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같지는 않음**. 과거 발언 중 **정책은 "state-contingent(상황 의존적)"이어야 하며, "pre-commitment(사전약속)"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 다만 오랜 기간 pilot test를 거쳐 이제 활용되기 시작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한국판 점도표)를 취임 직후 당장 없애기는 부담. 다만 기자회견 중 방향성을 언급해주기 어려워할 수 있음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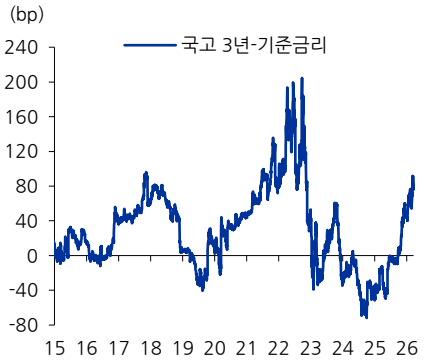
- 다행인 것은 통화정책 만능론자는 아님. 이창용 총재처럼 경제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 개인적인 발언은 아니나, 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재임한 시기에 발간된 <2022년 BIS Annual Economic Report>에 "공급 충격에는 통화정책 대응의 한계가 있으며 일시적인 충격에는 과도한 대응은 지양한다"는 내용이 있음. 기본 매파적 성향은 맞지만 이번 미-이란 사태의 지속성에 따라 정책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

한국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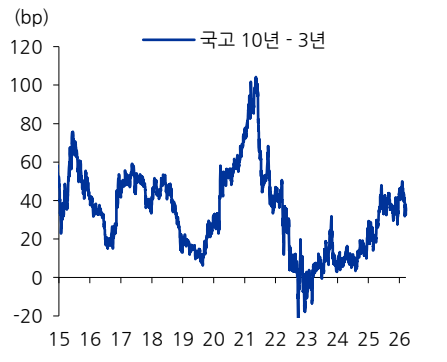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국고 3년-기준금리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유진투자증권

국고 10년-3년 스프레드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2020년 이후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주요 발언 정리

구분	날짜	출처	발언
1	2020.09.18	국제결제은행 연설	금융 시스템은 정책 대응의 중심 정책 조치는 실물경제로의 신용 흐름을 지원했음
2	2021.12.09	국제결제은행 연설	공급 병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원인 이러한 병목이 임금-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3	2022.06.02	연합뉴스 컨퍼런스	**인플레이션이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전에 빠르게 낮추는 것이 중요함**
4	2022.07.17	국제결제은행 연설	인플레이션,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고착될 위험 있어 중앙은행은 긴축 외에 선택지 거의 없음 **긴축이 부족하거나 늦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될 수 있음** **정책은 "state-contingent(상황 의존적)"이어야 함** **"pre-commitment(사전 약속)"의 한계 존재 :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보수적 시각**
5	2022.09.21	아시아경제 컨퍼런스	**인플레이션은 시작되면 점차 다른 가격으로 확산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확대됨** 이 고리를 끊어야 함 현재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과제
6	2022.11.02	블룸버그 인터뷰	달러 충격과 원자재 충격이 동시에 발생
7	2023.02.01	아시아경제 컨퍼런스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안정된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8	2023.03.07	국제결제은행 연설	**금융 긴축은 실물경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남**
9	2023.06.25	국제결제은행 연설	토큰화는 통화 및 금융 시스템 발전의 다음 큰 도약이 될 수 있음 통합 원장은 토큰화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가장 유망한 방식
10	2023.08.31	블룸버그 인터뷰	**중앙은행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11	2024.06.30	매일경제 인터뷰	올해는 정치적 변화와 격변의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과 환율 문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12	2025.06.29	국제결제은행 연설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은 신뢰 위에 구축되어야 함** **혁신은 기존 시스템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
13	2025.08.21	매일경제 인터뷰	국내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계속될 것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의 지배적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 때문임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범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14	2026.01.27	국제결제은행 연설	화폐는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 계획, 의무를 연결하는 조정 장치 화폐 가치에 대한 공통 인식은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 다른 사람들이 특정 화폐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나도 그것을 채택하려는 유인이 커짐 암호자산과 그 인프라의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음
15	2026.02.10	국제결제은행 연설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긴축 효과는 국가 간 파급되며 금융여건을 동시에 변화시킴**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